

보건학전공 대학생의 현장실습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남영희^{*†} · 이태임^{**} · 오향숙^{***}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세명기독병원 의무기록실

The Effect of Field Practic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Health Science Majors

Young-Hee Nam^{*†} · Tae-Im Lee^{**} · Hyang-Suk Oh^{***}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Namseoul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Daegu Health College

***Department Medical Recode, Se-Myeong Gidok Hospital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field practice of health science majors on their career attitude maturity in our country in an effort to determine influential factors.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20 selected health science majors in three different colleges located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September 1 to 10, 2016. As for statistical analysis, a statistical package SPSS 20.0 was used.

Results: The factors of the field practice of the health science majors that affected their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the career of people in charge ($\beta=.145$, $p=.034$) and the content of field practice ($\beta=.233$, $p=.015$), which were the factors of the institution for field practi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in charge and trainees ($\beta=.299$, $p=.008$) and satisfaction with field placement ($\beta=-.262$, $p=.013$) that were the factors of field practice tasks were also influential.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Institutions that provide health science majors with the opportunity of field practice should try to improve the competencies of people in charge, to ensure the substantiality of field practice in content and to develop standardized manuals for field practice. In schools, professors who are in charge of field practice should offer intensive

* 이 논문은 2016년도 남서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 : 2017년 3월 15일, 수정일 : 2017년 4월 24일, 채택일 : 2017년 4월 29일

교신저자 : 남영희(310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Tel : 041-580-3058, FAX : 041-580-2926, E-mail : yhnaml4@nsu.ac.kr

guidance and feedback on problems with field practice.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elevate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students.

Key words: Career Attitude Maturity, Field Practice, Health Science Majors

I. 서론

보건학전공 대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실습동안 활용해 보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처럼, 진로태도 성숙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도우며, 개인마다 진로를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해있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이고 독특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이기학, 1997).

보건학전공 학과는 대부분 현장실습을 개설하여 재학 중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의료기관에서 수행된다. 학생들은 현장실습동안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분적으로 부여받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사무보조, 자원봉사 등의 단순 업무에 거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제대로 업무에 적용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능력발휘의 기회를 제한받게 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적합한 진로설정을 위한 진로태도성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현장실습의 충실도와 질은 진로선택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고, 전공에 대한 확신과 진로결정 수준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김영주, 2015; 박창규, 2011; 이해경, 2009). 전공만족도와 진로선택의 동기요인에 따라서 진로 방향이 달라지고(김수영, 2007), 개인마다 자신이 살아 온 환경과 직업에 대한 지식 및 기대감이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진로태도성숙의 정도도 달라진다(장석민 등, 1991). 따라서 보건학전공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진로설정에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고,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므로 현장실습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산업사회는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화 속도도 급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현장직무형 자기주도 학습이 요구된다(이은희, 2009).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한정된 현장실습으로는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 적응력과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장미화, 2015). 권혜진 등(2009)도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진로태도성숙이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습모듈을 기초로 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이는 산업체와 교육기관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일-교육-훈련-자격 등을 연결하여 해당 직업 내에서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업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실습은 실습기관에게는 인력 보충 및 직무에 적합한 인재 양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개념들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스킬 향상 및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진로태도성숙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학전공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능력을 고려하여 관심 있는 분야로 진로를 설정하고, 설정한 진로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자신의 진로태도성숙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요인별 진로태도성숙,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과업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요인별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학전공 대학생의 현장실습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의 모집단은 보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경북, 충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1개교와 3년제 대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236명이다. 236명의 연구대상자는 모두 응답하여 비응답자는 없었으나,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설문지 16부가 있어 이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실습생요인

실습생요인은 강희자(2003)가 사용한 것을 기초하여 정수영(2006)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실습학년, 종교, 실습횟수, 실습시기, 성적수준, 향후진출분야, 실습기관 선정 시 의사반영정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2) 실습기관요인

(1) 실습기관 및 실습내용

실습기관 및 실습내용은 김주리(1992)가 사용한 것을 기초하여 전미숙(2014)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실습기관 및 실습내용은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9이었다.

(2) 실습담당자

실습담당자는 전미숙(2014)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실습담당자는 보건행정 업무에 경력을 보유한 자로 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의 활용뿐 아니라 직원을 통솔하고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또한 실습생에 대한 실습 내용을 관리, 지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실습담당자의 성별, 연령, 관련학문 전공 여부, 최종학력 그리고 실무경력을 포함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3) 실습과업요인

(1) 실습담당자와 실습생과의 관계

실습담당자와 실습생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용일(1987)이 사용한 것을 기초하여 정수영(2006)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실습담당자는 실습기간 동안에 실습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실습생의 진로태도성숙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습담당자와 실습생의 관계는 상호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관계형성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습담당자와 실습생의 과업과의 관계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0이었다.

(2) 실습만족도

실습만족도는 정수영(2006)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실습만족도는 실습기간 동안에 수행된 실습내용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적용정도, 실습생이 실질적인 업무의 이해정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모두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5이었다.

4) 학교요인

학교요인은 강희자(2003)가 사용한 것을 기초하여 정수영(2006)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서 실습을 지도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지도교수유무, 실습과 관련된 전공과목 수강유무, 실습과목 수강인원 3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5)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은 Crites(1978)의 Career Maturity Inventory(CMI)를 기초로 하여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CAMI)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결정성 10문항, 목적성 8문항, 확신성 10문항, 준비성 10문항, 독립성 9문항으로 총 47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취하는 행동이 자신이 속한 연령층에서 기대되는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6, 0.75, 0.77, 0.67, 0.72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계수 0.78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경북 및 충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1개교와 3년제 대학 2개교에서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보건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설문진행절차, 소요시간 및 자유로운 연구 참여나 철회 등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자 2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토록 하였고, 응답 후 바로 회수하였다.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최종 22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요인별 진로태도성숙,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과업과의 관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요인별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별 진로태도성숙과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제시된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진로태도성숙에 대

한 평균 점수는 3.18로 보통(3.0) 정도로 파악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 진로태도성숙은 종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기독교와 불교가 천주교나 무교보다 진로태도성숙의 점수가 높았다. 그 외 변수에서는 진로태도성숙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일반적 특성별 진로태도성숙과의 차이

구 분	N(%)	진로태도성숙		t/F	p	
		Mean	S.D.			
전 체	220(100.0)	3.18	.234			
성별	남자	35(15.9)	3.17	.334	-0.140	0.889
	여자	185(84.1)	3.17	.219		
연령	21세 이하	150(68.2)	3.16	.232	-0.752	0.454
	22세 이상	70(31.8)	3.19	.257		
실습학년	2학년 이전	130(59.1)	3.15	.236	-1.419	0.158
	3학년 이후	90(40.9)	3.20	.244		
실습횟수	1회	209(95.0)	3.17	.236	-0.947	0.364
	2회 이상	11(5.0)	3.26	.305		
실습시기	하계방학	60(27.3)	3.17	.230	-0.231	0.818
	동계방학	160(72.7)	3.17	.245		
향후 진출분야	병원행정분야	80(36.4)	3.17	.254	2.125	0.098
	국가보건기관	71(32.3)	3.14	.198		
	의무기록분야	43(19.5)	3.18	.220		
	기타	26(11.8)	3.26	.317		
성적수준	상위권	25(11.4)	3.23	.289	0.221	0.802
	중위권	155(70.5)	3.16	.239		
	하위권	40(18.2)	3.17	.216		
종교	기독교	49(22.3)	3.18	.311	3.768	0.012
	천주교	15(6.8)	3.12	.209		
	불교	31(14.1)	3.18	.290		
	무교	125(56.8)	3.17	.198		

2. 요인별 진로태도성숙,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과업과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요인별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영역,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과업과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실습생요인은 진로태도성숙 하위영역 목적성의 향후 진출분야(F=3.023, p<0.05)에 따라서, 준비성의 성별(t=2.094, p<0.05), 연령(t=-2.149, p<0.05), 실습학년(t=-2.289, p<0.05)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습기관요인은 하위영역 결정성과 확신성의 담

당자의 연령(F=3.035, p<0.05), (F=5.305, p<0.05)에 따라서, 준비성의 담당자의 경력(t=2.120, p<0.05)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요인은 진로태도성숙과의 차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실습내용은 실습생요인의 성별(t=2.362, p<0.05)에 따라서, 학교요인의 담당교수유무(t=2.419, p<0.05)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습담당과 과업은 실습생요인의 성별(t=4.149, p<0.001)에 따라서, 연령(t=-2.342, p<0.05)에 따라서, 학교요인의 담당교수유무(t=2.486, p<0.05)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 요인별 진로태도성숙,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과업과의 차이

구 분	N(%)	진로태도성숙 Mean±S.D.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과업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성별	남자	35(15.9)	2.95±.43	3.00±.66	3.23±.34	3.88±.50	3.11±.32	2.69±.57	4.05±.58	
	여자	185(84.1)	3.03±.29	2.97±.46	3.25±.26	3.69±.46	3.13±.28	2.45±.50	3.60±.63	
	t		-1.377	0.363	-0.263	2.094*	-0.253	2.362*	4.149***	
연령	21세 이하	150(68.2)	3.03±.30	2.95±.48	3.24±.27	3.67±.47	3.12±.28	2.46±.48	3.60±.61	
	22세 이상	70(31.8)	2.99±.34	3.12±.53	3.25±.29	3.81±.45	3.14±.29	2.54±.59	3.82±.68	
	t		0.878	-0.902	-0.208	-2.149*	-0.411	-1.017	-2.342*	
실습생 요인 실습 학년	2학년 이전	130(59.1)	3.01±.32	2.98±.52	3.23±.28	3.66±.49	3.11±.27	2.45±.52	3.66±.63	
	3학년 이후	90(40.9)	3.02±.31	2.97±.46	3.26±.27	3.80±.43	3.14±.30	2.55±.50	3.69±.65	
	t		-0.222	0.140	-0.728	-2.289*	-0.809	-1.376	-0.329	
향후 진출 분야	병원행정분야	80(36.4)	3.04±.32	2.91±.51	3.26±.31	3.73±.43	3.09±.30	2.50±.46	3.65±.59	
	국가보건기관	71(32.3)	2.98±.29	2.97±.43	3.20±.23	3.64±.48	3.14±.26	2.39±.60	3.65±.71	
	의무기록분야	43(19.5)	2.99±.04	2.94±.41	3.27±.26	3.73±.51	3.14±.24	2.55±.47	3.66±.64	
	기타	26(11.8)	3.08±.31	3.21±.66	3.28±.30	3.86±.49	3.12±.28	2.63±.49	3.83±.62	
F		0.766	3.023*	2.583	0.438	0.973	1.777	0.941		
실습 기관 요인	남자	129(58.6)	3.01±.31	2.96±.55	3.23±.28	3.72±.49	3.13±.27	2.50±.49	3.69±.65	
	여자	91(41.4)	3.03±.32	2.99±.48	3.25±.27	3.71±.44	3.12±.29	2.47±.55	3.64±.63	
	t		-0.561	-0.533	-0.506	0.241	0.103	0.388	0.671	
	연령	30세 이하	22(10.0)	3.03±.39	3.17±.70	3.35±.34	3.89±.46	3.09±.40	2.71±.57	4.10±.56
	31-50	180(81.8)	3.00±.29	2.95±.58	3.22±.25	3.71±.45	3.13±.27	2.46±.51	3.62±.63	
51세 이상	18(8.2)	3.14±.41	2.92±.58	3.29±.37	3.61±.62	3.14±.26	2.55±.44	3.62±.65		
F		3.035*	2.798	5.305*	2.395	2.719	1.477	0.568		

구 분	N(%)	진로태도성숙 Mean±S.D.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과업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경력	10년 미만	68(30.9)	3.05±.32	3.01±.57	3.27±.27	3.82±.48	3.15±.29	2.44±.50	3.69±.63
	10년 이상	152(69.1)	3.00±.31	2.95±.46	3.23±.28	3.67±.46	3.11±.28	2.51±.52	3.66±.65
	t		1.088	0.788	1.126	2.120*	0.883	-0.931	0.258
담당 교수 유무	있음	169(76.8)	3.01±.33	2.98±.51	3.25±.28	3.74±.46	3.13±.28	2.54±.50	3.73±.63
	없음/모름	51(23.2)	3.02±.27	2.96±.44	3.20±.25	3.63±.49	3.10±.28	2.33±.54	3.47±.65
	t		-0.234	0.159	1.231	1.453	0.548	2.419*	2.486*
학교 요인	전공								
	모두수강	54(24.5)	2.95±.34	3.00±.54	3.25±.33	3.72±.50	3.07±.26	2.53±.48	3.76±.66
	일부수강	166(75.5)	3.04±.30	3.00±.48	3.24±.26	3.72±.46	3.14±.29	2.48±.53	3.64±.63
유무	t		-1.663	0.262	0.147	0.077	-1.803	0.733	1.152
수강 인원	40명 미만	151(68.6)	3.01±.32	2.99±.51	3.25±.28	3.70±.48	.311±.27	2.48±.50	3.66±.64
	40명 이상	69(31.4)	3.02±.31	2.94±.46	3.24±.28	3.75±.45	3.15±.31	2.52±.55	3.69±.63
	t		-0.248	0.634	0.234	-0.689	-0.955	-0.575	-0.331

*p<0.05, **p<0.01, ***p<0.001

3.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영역과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과업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 하위영역 준비성은 실습

내용(r=0.299, p<0.01) 및 실습담당자와 과업(r=0.422,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습내용은 실습담당자와 과업(r=0.696,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	진로태도성숙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과업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r(p)							
진로 태도 성숙	결정성	1.00						
	목적성	0.323**	1.00					
	확신성	0.394**	0.350**	1.00				
	준비성	0.079	0.111	0.220**	1.00			
	독립성	0.173*	0.271**	0.231**	0.219**	1.00		
실습내용		0.081	0.083	0.131	0.299**	0.123	1.00	
실습담당자와 과업		-0.009	0.016	0.091	0.422**	0.082	0.696**	1.00

*p<0.05, **p<0.01, ***p<0.001

4. 요인별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실습생요인, 실습기관요인, 실습과업요인, 학교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정결과에서 공차한계(tolerance)는 0.325-0.939로 0.1이상이었 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65- 3.078로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배제 되었다.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실습관련 변수를 회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016, p<0.001$).

현장실습과 관련된 주요 독립변수들은 진로태도성숙에 대하여 15.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요인은 실습기관요인과 실 습과업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관요인은 담당자 의 경력($\beta=0.145, p=0.034$)이 많을수록, 실습내용($\beta =0.233, p=0.015$)이 우수할수록 진로태도가 성숙하 였고, 실습과업요인은 실습담당자와 실습생과의 관 계($\beta=0.299, p=0.008$)가 좋을수록, 실습만족도($\beta =-0.262, p=0.013$)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표 4> 요인별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구 분	B	SE	β	t	p	
(상수)	134.361	5.252		25.581	0.000	
실습생요인	성별	1.684	2.429	0.058	0.693	0.489
	연령	1.632	1.892	0.072	0.863	0.389
	학년	1.092	1.532	0.051	0.713	0.477
실습기관요인	성별	0.131	1.425	0.006	0.092	0.939
	연령(31-50세)	-1.232	2.489	-0.045	-0.495	0.621
	연령(51세 이상)	0.323	3.468	0.008	0.093	0.926
	경력	3.340	1.561	0.145	2.139	0.034
실습과업요인	실습내용	4.791	1.957	0.233	2.448	0.015
	실습담당자와 실습생과의 관계	4.968	1.869	0.299	2.659	0.008
학교요인	실습만족도	2.906	1.160	0.262	2.505	0.013
	담당교수유무	0.503	1.735	0.020	0.290	0.772
	전공과목수강정도	2.271	1.679	0.092	1.353	0.178
R ² =15.1		F(p) =3.061 (p< 0.001)				
Adjusted R ² =10.1						

IV. 논의

본 연구는 경북 및 충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및 3년제 대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보건학전공 대학

생의 현장실습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써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로태도성숙은 종교에 따라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김명아 등(2004)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은 종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독교가 가장 점수가 높았고 무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본 연구는 기독교가 가장 높았고, 천주교가 가장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전미숙(2014)은 진로태도성숙과 종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보건학전공 대학생은 향후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진로를 설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진로태도성숙과 종교 간의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습생요인은 성, 연령, 학년이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영역 준비성과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성은 자신의 진로에 몰입 정도와 진로 선택의 이해 및 준비 정도를 나타낸다. 준비성은 22세 이상, 3학년이상의 남학생에게서 높았고, 실습기관 담당자의 경력은 10년 미만일 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나이가 많을수록, 졸업이 다가올수록 향후 경제적 책임감 등에 대한 부담이 준비성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는 Creed & Patton(2003), 김영태(2005), 천의영 등(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태도가 성숙한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나, 조지혜(2007)의 연구는 다른 학년보다 대학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권혜진 등(2009), 김명아(2009)는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영역 중 준비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도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영역 중 준비성이 유의한 변수가 가장 많아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영역 목적성은 진로를 통해 자아실현의 성취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향후 진출분야에 대한 목표설정이 확실한 학생일수록, 경제적, 안정적 직업을 선호할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가보건의관으로 진출하고자

학생의 경우 목적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무기록분야, 병원행정분야 순이었다.

실습기관요인은 실습담당자의 연령, 실습담당자의 경력이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영역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정도를 나타낸다. 준비성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 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낸다. 결정성은 실습담당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향력이 높았다. 이는 실습담당자의 연령이 높다는 것은 전공분야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한 상태로 실습생의 입장에서 향후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척도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나, 확신성은 실습담당자의 연령이 30세 이하인 경우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결정성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확신성은 실습생과 실습담당자와의 세대차가 가장 적은 연령대일 때 서로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동일 전공의 선배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확신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한편, 준비성도 실습담당자의 경력이 10년 미만일수록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확신성의 이유와 같을 것으로 본다.

학교요인은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습담당교수 유무는 실습내용과 실습담당자와 과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담당교수가 있을 때 실습내용과 실습담당자와 과업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실습 담당교수가 현장 실습지를 방문하여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실습의 내용과 실습담당자와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남영희 등(2009)의 연구에서 교수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학생들은 전공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실습과업요인으로 실습담당자와 실습생과의 관계, 실습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담당자와 실습생과의 관계, 실습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가 성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철 등(2004)은 보건학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지침서가 갖추지 않은 부서가 63.1%에 달한다고 하고 있어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습계획서가 매우 필요하고, 이 또한 실습내용과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전미숙(2014)의 연구에서는 실습담당자와 실습생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실습기관에서는 실습담당자에게 정기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실습생을 위한 실습가이드라인과 계획서를 준비하여 체계적인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습생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습과업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 영역은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과업과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진로태도성숙과 현장실습의 충실성은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무경험, 진로선택, 취업과 인맥형성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현장실습이 매우 필요하다(박창규, 2011).

본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15.1%로 중간정도의 설명력을 보인다. Cohen(1988)에 따르면 사회과학분야 연구에서 설명력 R^2 가 0.26이상은 상, 0.26-0.13은 중, 0.13 미만은 하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은 현장실습동안 실습기관의 담당자 경력과 실습내용, 실습담당자와 실습생과의 관계와 실습만족도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보건학전공 대학생의 진로태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양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 적용해 보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보건학

전공 대학생들이 향후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함으로써 진로태도를 성숙시키는데 당위성을 제시한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보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 그리고 능력을 고려하여 관심 있는 분야로 진로를 설정하고, 설정한 진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진로태도를 성숙시키는데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건학전공 대학생은 실습생요인의 목적성과 준비성이 실습기관요인의 결정성, 확신성 및 준비성이 진로태도성숙과 관련이 있었고, 독립성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영역 준비성은 실습내용 및 실습담당자와 과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실습내용은 실습담당자와 과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실습기관요인과 실습과업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학전공 대학생의 진로태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관련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교류가 요구되며, 산업체에서는 향후 현장 투입이 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초기 단계라 보고 최선을 다해 실무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본 연구는 경북 및 충남에 소재한 보건학전공 대학생을 임의표본추출방식을 취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하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보건학전공 대학생의 현장실습이 진로태도성숙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학제에 따라서, 현장실습 전후에 따라서, 진로태도성숙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강희자.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2. 국가직무능력표준, <http://www.ncs.go.kr>. 2017. 3.11 검색.
3. 권혜진 등 11명. 서울지역 4년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유, 무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이화간호학회지 2009;43:41-50.
4. 김명아 등 5명.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04;13(4):383-391.
5. 김수영. 사회복지학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전북지역 3개 대학 사회복지학전공자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전북: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6. 김영주. 산학실습이 대학생들의 직업의식 변화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5;2015(1):161-178.
7. 김용일. 사회사업학과 학생들의 기관실습이 전문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87;3:69-82.
8. 김영태.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원광대 학술지 2005;34:81-104.
9. 김주리. 사회사업 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10. 남영희, 권현주, 천의영.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12;13(2):17-27.
11. 박창규. 관광관련학과 산학현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수도권 지역 여행사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2011;7(3):179-200.
12. 원미라, 김연정.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관련 요인. 대학생활연구 2013;19(1):57-72.
13. 이기학.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 외통제성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7.
14. 이용철, 임복희, 박영희, 엄철준. 의료기관 실습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의견조사. 보건정보관리학회지 2004;9:25-47.
15. 이은희. 보건행정과 학생들의 병원실습에 대한 만족도조사. 보건정보관리학회지 2009;20 :57-62.
16. 이해경.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17. 장미화. 로직모형에 근거한 치위생과 현장실습 운영 질관리 평가기준 개발[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5.
18.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1.
19. 전미숙, 이상주. 사회복지전공자의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2014;12:127-148.
20. 정수영.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강원: 한림대학교 대학원, 2006.
21. 천의영, 남영희, 권현주.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업 교육경험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보건행정학회지 2009;19(3):166-182.
22. 황현주, 허경숙, 정유경. 산학실습에 대한 만족이 조리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과학회지 2006;22(5):702-711.
23.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Lawrence Erlbaum, Hillsdale, NJ, 1988.
24. Creed PA, Patton W. Differences in career attitude and career knowledge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and without paid work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003;3(1):21-33.

25. Crites JO.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Monterey, California: CTB/McGraw-Hill, 1978.